법정 최고금리 비웃는 '불법사채'

작년 평균 이자율 353%…법정 최고금리 24%

한국대부금융협회 '채무조정제도' 이용 당부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지만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이용자들은 여전히 초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협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대부협회가 지난해 176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채 연평균 이자율은 353%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하면 100만원을 빌릴 경우 연 이자가 353만원에 이른다. 24%인 법정 최고금리는 안중에도 없는 수치다.

이번 조사는 사법당국(970건)과 소비자(792건)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 연평균 이자는 사법당국 정보가 228%인 반면 소비자 정보는 780%에 달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고금리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었으며 평균 거래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별로 보면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이 320건, 담보대출이 55건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채는 법정금리를 무시하고 있지만 처벌이 쉽지 않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거래 관계과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자율 계산을 위해서는 대부협회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이자율 계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부협회는 채무조정제도 활용도 당부했다. 피해자가 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협회가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대부협회는 지난해에만 264건(대출금액 7억9518만원)의 불법사채를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금리보다 초과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주희탁 대부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관련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이 가중 처벌되고,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다.

올해도 가장 비싼 땅은 명동 화장품 매장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평균 상승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서울은 11년만에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12일 오후 1㎡당 1억8300만원으로 전국에서 땅 값이 제일 비싼 곳으로 나타난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앞을 관광객이 오가고 있다.

12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무재해 목표달성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박래석 기아차 광주공장장(앞줄 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안전 구호를 외치며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무재해 목표달성"

근로자 안전 최우선 과제 선정 안전의식 고취 강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올 해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안전의식 고취 강화에 나섰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12일 박래석 광주공장장을 비롯한 임원, 부서장, 그룹장 등 관리감독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재해 안전사업장 목표달성 결의대회'를 했다.

임직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현장에서부터 안전마인드를 확립해 재해 없는 광주공장을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 기본수칙을 준수해 중대재해 예방', '작업장 내 잠재위험 사전 발굴', '원·하청 공생 협력을 통한 6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선제적 환경설비 구축을 통한 친환경 사업장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독려 했다.

아울러 전체 임직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소공장별로 무재해 목표 달성 결의문을 게시하고, 부서별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별도로 열고 안전 결의문을 확대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안전은 수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문제로 광주공장 모든 임직원이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결의대회를 시발점으로 현장에서부터 안전마인드 확립을 통해 재해 없는 광주공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본고장' 美 농장 달리는 국산 트랙터

농림부, 지난해 수출 10억4200만달러…사상 최대

지난해 국산 농기계 수출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지난해 농기계 수출은 10억4200만 달러를 달성해 최초 수출이 이뤄진 1990년(1400만 달러) 이래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농업용 트랙터가 전체 수출의 62.6%를 차지하며 수출 호조세를 견인했다. 특히 트랙터 수출의 56%는 트랙터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으로 나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액 비중으로는 미국이 55.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우즈베키스탄(4.7%), 일본(3.7%), 호주(3.0%), 중국(2.8%) 순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계 농기계 시장의 공급증가 추세에 힘입어 수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농기계 수출이 북미시장에 편중된 데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시장 등 수출 시장 다변화와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시스

'광주·전남愛사랑카드'

출시 1년 만에 3만좌 돌파

광주은행은 '광주·전남愛(애)사랑카드'(5종)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 3만좌를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전남愛사랑카드는 지역상생과 지역 점유율 강화를 위한 송종욱 은행장의 의지를 담아 야심차게 출시한 카드이다.

광주·전남愛사랑카드는 카드 이용액의 일정 금액을 광주·전남 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고향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기부금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지역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출향민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개인고객상품은 이용 금액의 0.5%, 기업고객상품은 이용 금액의 0.1%가 기부되며 광주은행은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약 1억3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조달청, 상품별 전문팀제 시범 운영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편리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유사 상품에 대한 규격 검토와 입찰 및 계약 방법 등 모든 조달업무를 전담하는 '상품별 전문팀제'를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구매사업국의 조직을 개편, 종합쇼핑몰 운영업무 등 구매제도 관련 업무는 구매총괄과로 일원화하고 나머지 구매사업국 4개과는 전문팀제로 시범 운영키로 했다.

전문팀제 도입으로 자재장비과에는 섬유팀이 설치돼 군·경찰·소방 피복류, 커튼류, 가방, 신발 등의 구매업무를 전담하고 국방상용물자 이관을 위한 국방상용물자 이관 전담조직(T/F팀)이 운영된다.

쇼핑몰기획과는 3개 전문팀제로 꾸려져 ▲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 관류 등의 업무를 맡는 시설자재팀 ▲상용 차량, 소방 등 특수차량, 농기계를 맡는 차량팀 ▲기드레일, 난간, 울타리 등의 구매업무를 전담하는 도로시설팀으로 운영된다.

쇼핑몰단가계약과에는 전자제품팀과 바이오화학팀을 둬 각 컴퓨터·복사기·세탁기·의료기기 등과 의약품·응집제·제설제 등의 구매업무를 전담시킬 방침이다.

또 쇼핑몰구매과에는 신재생에너지팀을 설치해 에너지저장장치, 발광 다이오드(LED)조명, 냉난방기 등의 구매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혁신 신상품의 조달시장 판로개척을 전담하는 혁신조달팀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정식 과(課)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